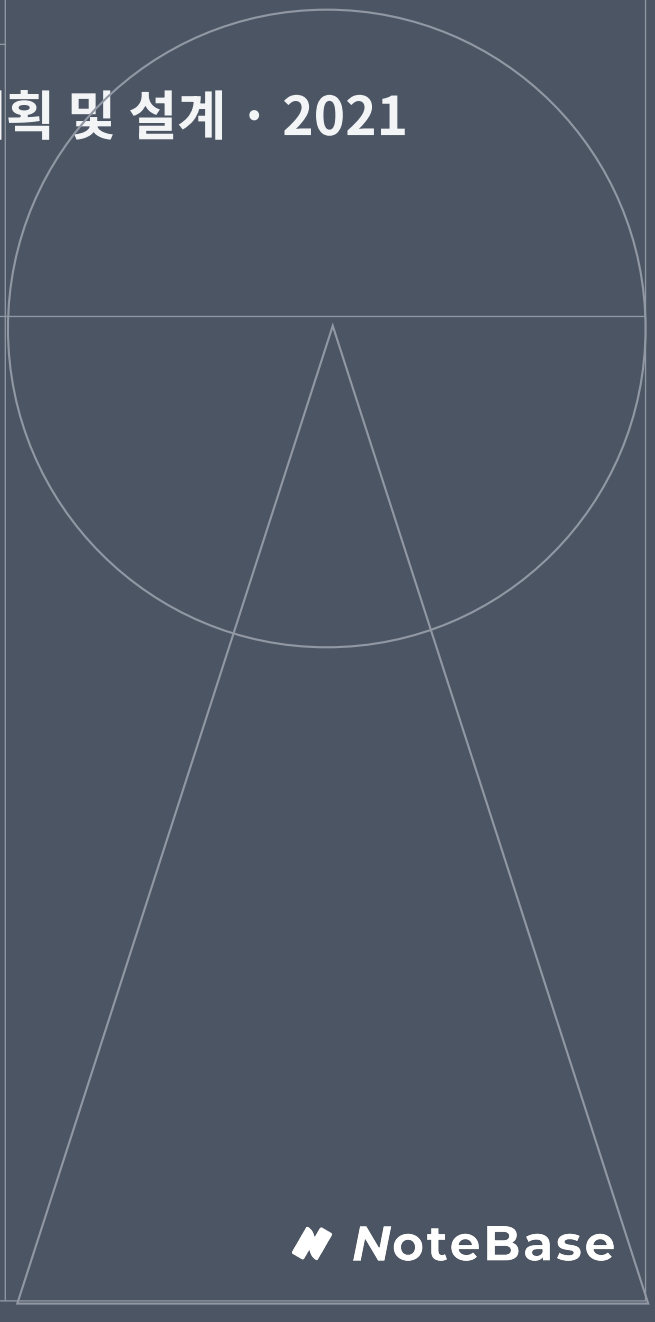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회직/9급 · 조경계획 및 설계 · 2021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회직/9급 · 조경계획 및 설계 · 2021

공무원/국회직/9급 · 조경계획 및 설계 · 2021

1. **조경계획의 행태적 접근과 관련하여 개인공간(Personal Space)과 영역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공간이란 개인 주변에 형성되는 공간으로 방어 및 정보교환의 기능을 담당한다.

   ② 영역성은 개인이나 일정 그룹이 점유하는 공간으로 실질적 또는 심리적 소유권을 행사하는 공간이다.

   ③ 영역성은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이동하며 보이지 않는 경계를 지닌 공간인 반면, 개인공간은 볼 수 있는 고정된 공간이다.

   ④ 휴식공간에 의자를 마주보게 배치하여 대화를 유도하는 것은 개인공간의 개념을 조경계획에 응용한 사례이다.

   ⑤ 공동주택단지 입구에 상징적으로 문주를 설치하는 것은 영역성의 개념을 조경계획에 응용한 사례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개인을 따라 움직이는 비가시적 공간인 개인공간과, 일정한 장소를 점유·통제하는 영역성의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개인공간: 개인의 몸을 둘러싸며 다른 사람과의 거리와 상호작용을 조절하는 비가시적 공간이다. 개인과 함께 이동한다.

영역성: 개인이나 집단이 일정한 장소를 자기 영역으로 점유하고 경계를 표시하며 통제하려는 성향이다. 대체로 장소에 고정된다.

핵심 대비: 개인공간은 비가시적·이동적이고, 영역은 경계가 표시되는 장소적·고정적 공간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개인공간은 개인 주변에 형성되어 타인의 접근을 조절하므로 방어 기능과 대인 정보 교환 기능을 수행한다.
② O — 영역은 개인이나 집단이 점유하고 통제하며 심리적 소유감을 행사하는 공간이다.
③ X — '영역은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이동하는 보이지 않는 공간이고, 개인공간은 볼 수 있는 고정된 공간'이라는 부분이 서로 뒤바뀌었다. 올바르게는 개인공간이 사람과 함께 이동하는 비가시적 공간이고, 영역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며 경계가 표시될 수 있는 공간이다.
④ O — 의자를 마주 보게 하여 대화를 유도하는 배치는 사람 사이의 거리와 방향을 조절하는 개인공간 개념의 응용이다.
⑤ O — 공동주택단지 입구의 상징적 문주는 영역의 경계를 알리고 안과 밖을 구분하므로 영역성의 응용이다.

오답 포인트

③은 개인공간과 영역성의 속성을 정확히 맞바꾸어 제시한다. '사람을 따라 이동함·보이지 않음'은 개인공간, '장소에 고정됨·경계를 표시함'은 영역의 특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간이 사람을 따라 움직이며 대인거리를 조절하면 개인공간으로, 일정한 장소를 점유하고 문·담장·표지 등으로 경계를 나타내면 영역성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개인공간은 사람을 따라 움직이고, 영역은 장소에 머문다.

NoteBase

2. 축척 1/1,000인 지형도에 표기된 두 지점의 표고가 각각 200m와 220m이고, 두 지점 간 지형도 상의 수평거리가 10cm인 구간의 경사(%)는?

① 5%
② 10%
③ 15%
④ 20%
⑤ 25%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축척으로 지도상의 거리를 실제 수평거리로 환산한 뒤, 두 지점의 표고차를 이용하여 경사율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축척 1/1,000, 두 지점의 표고 200m와 220m, 지도상 수평거리 10cm이다.
구해야 할 값: 두 지점 사이의 경사율(%)이다.
주의할 조건: 지도상의 10cm를 축척에 따라 실제 수평거리로 먼저 환산해야 한다.

사용할 공식

실제 수평거리는 지도상 거리 × 축척의 분모이므로
$10cm \times 1{,}000 = 10{,}000cm = 100m$
경사율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경사율(\%)=(표고차)/(수평거리)×100
경사율은 수평으로 이동한 거리에 대한 높이 변화의 비율이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표고차는 $220m - 200m = 20m$이다.
2. 지도상 거리 10cm는 실제 수평거리 100m이다.
3. 경사율은 다음과 같다.

$\frac{20m}{100m} \times 100 = 20\%$

따라서 구간의 경사는 20%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5%는 계산 결과 20%와 일치하지 않는다. 5%가 아니라 20%로 고쳐야 한다.
② X — 10%는 표고차 20*m*를 실제 수평거리 100*m*로 나눈 값이 아니다. 10%가 아니라 20%로 고쳐야 한다.
③ X — 15%는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15%가 아니라 20%로 고쳐야 한다.
④ O — 실제 수평거리 100*m*에 대한 표고차 20*m*의 비율은 20%이므로 옳다.
⑤ X — 25%는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25%가 아니라 20%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지도상의 10*cm*를 실제 거리 10*m*로 잘못 환산하거나, 표고차 20*m*를 구한 뒤 수평거리로 나누지 않고 선택하는 것이 함정이다. 축척 1/1,000에서는 지도상 1*cm*가 실제 10*m*이므로 10*cm*는 100*m*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축척 문제에서는 지도상 거리에 축척의 분모를 곱해 실제 수평거리로 바꾸고, 표고차의 절댓값을 구한 뒤, 표고차/수평거리×100으로 경사율을 계산한다. 마지막에는 분자와 분모의 거리 단위가 같은지 검산한다.

암기 포인트

경사율(%)은 표고차/수평거리×100이며, 축척 1/1,000에서 지도상 1*cm*는 실제 10*m*이다.

NoteBase

3.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제7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주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토지이용현황도
② 생태면적률현황도
③ 토지피복현황도
④ 식생도
⑤ 동·식물상주제도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제7조에 따른 기본주제도의 범위를 묻는다. 핵심은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기본주제도와 지역 특성에 따라 작성할 수 있는 기타주제도를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기본주제도는 비오톱의 구조적·생태적 특성을 조사하고 유형화하는 데 기본이 되는 주제도이다.

핵심 구분

현행 지침 제7조 제1항의 기본주제도는 토지이용·토지피복현황도, 투수·불투수현황도, 지형주제도, 현존식생도, 동·식물상주제도이다. 따라서 생태면적률현황도는 이 조항이 열거한 기본주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는 토지이용현황도와 토지피복현황도를 '토지이용·토지피복현황도'로 통합하여 표기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토지이용은 기본주제도의 조사 내용에 해당한다. 현행 지침에서는 토지피복과 묶어 '토지이용·토지피복현황도'로 표기한다.
② X — 생태면적률현황도는 제7조 제1항이 열거한 기본주제도가 아니다. 틀린 표현: '생태면적률현황도'. 올바른 표현: 기본주제도에는 '투수·불투수현황도'가 포함된다.
③ O — 토지피복은 기본주제도의 조사 내용에 해당한다. 현행 지침에서는 토지이용과 묶어 '토지이용·토지피복현황도'로 표기한다.
④ O — 식생도는 기본주제도에 해당하며, 현행 지침의 정확한 명칭은 '현존식생도'이다.
⑤ O — 동·식물상주제도는 제7조 제1항에 명시된 기본주제도이다.

오답 포인트

'생태'라는 말이 들어간 지도를 모두 도시생태현황지도의 기본주제도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②의 생태면적률현황도는 열거 항목이 아니며, 기본주제도에는 투수·불투수현황도가 포함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본주제도는 토지이용·토지피복, 투수·불투수, 지형, 현존식생, 동·식물상의 다섯 묶음으로 판단한다. 이 목록에 없는 명칭은 기본주제도로 단정하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토·투·지·식·동: 토지이용·피복, 투수·불투수, 지형, 식생, 동·식물상이다.

NoteBase

4. 자연과학에 기반하여 인간의 환경적응 문제를 파악하고 새로운 환경 창조에 기여하자고 주장한 이안 맥하그(Ian McHarg)의 이론은?

① 문화 결정론
② 자연과학론
③ 비오톱 결정론
④ 생태적 결정론
⑤ 인간 적응론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이안 맥하그(Ian McHarg)와 자연과학에 기초한 생태적 계획 이론을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이안 맥하그: 생태적 결정론 — 토양, 지형, 수문, 식생 등 자연환경의 생태적 조건과 수용력을 분석하고, 그 조건에 적합한 토지이용과 설계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본다. 그의 저서 『Design with Nature』로 대표되는 중첩 분석은 이러한 관점을 계획 방법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문화 결정론은 인간의 문화가 환경과 행동을 결정한다는 관점이므로 맥하그의 자연환경 중심 계획 이론과 다르다. 틀린 표현은 '문화 결정론'이며, 올바르게는 '생태적 결정론'이다.
② X — 맥하그가 자연과학의 지식을 계획에 활용한 것은 맞지만, 그의 이론을 가리키는 명칭은 자연과학론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자연과학론'이며, 올바르게는 '생태적 결정론'이다.
③ X — 비오톱은 생물이 서식하는 일정한 공간 단위를 뜻하는 생태학·조경계획의 개념이지만, '비오톱 결정론'은 맥하그의 대표 이론명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비오톱 결정론'이며, 올바르게는 '생태적 결정론'이다.
④ O — 생태적 결정론은 자연환경의 생태적 조건을 분석하여 적합한 토지이용과 설계를 결정한다는 맥하그의 관점을 나타낸다.
⑤ X — 인간 적응론은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는 표현으로, 자연의 생태적 조건을 계획의 기초로 삼는 맥하그의 이론명과 다르다. 틀린 표현은 '인간 적응론'이며, 올바르게는 '생태적 결정론'이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문제의 '자연과학에 기반'이라는 표현만 보고 ② 자연과학론을 고르기 쉽다. 그러나 자연과학은 이론의 분석 기반이고, 맥하그의 자연환경 중심 계획관을 부르는 핵심 명칭은 생태적 결정론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안 맥하그·Design with Nature·자연환경의 중첩 분석·환경 수용력’이 제시되면 자연의 생태적 조건을 계획의 출발점으로 삼는 생태적 결정론으로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맥하그 = 자연과 함께하는 설계 = 생태적 결정론이다.

NoteBase

5. 공간계획에서 개별 서식처와 생물종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적 맥락에서 모든 서식처와 생물종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개념은?

① 비오톱
② 경관구조
③ 완충지역
④ 생물권
⑤ 생태네트워크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개별 서식공간을 가리키는 개념과 여러 서식공간을 지역적 맥락에서 연결하여 보전하는 체계의 차이를 묻는다.

핵심 개념

생태네트워크는 핵심 서식지, 생태통로, 완충 공간 등을 서로 연결하여 생물의 이동과 생태적 과정이 지역 전체에서 이어지도록 하는 보전 체계이다.
비오톱은 비교적 균질한 환경조건과 생물군집을 지닌 개별 서식공간이고, 경관구조는 패치·통로·기질 등의 공간적 배열이며, 완충지역은 핵심지역에 미치는 외부 영향을 줄이는 주변 공간이다. 생물권은 생물이 살아가는 지구상의 범위를 뜻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비오톱은 특정 생물군집이 살아가는 비교적 균질한 개별 서식공간이므로, 모든 서식처와 생물종을 지역적으로 연결하여 보전하는 체계를 뜻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비오톱'은 '생태네트워크'로 고쳐야 한다.
② X — 경관구조는 패치·통로·기질 등 경관요소의 구성과 공간적 배열을 뜻하는 분석 개념이다. 지역의 서식처를 연결하여 종과 생태적 과정을 보전하는 체계라는 뜻이라면 '생태네트워크'가 맞다.
③ X — 완충지역은 핵심지역 주변에서 외부 교란이나 개발 압력을 줄이는 공간이다. 모든 서식처와 생물종을 지역적 맥락에서 연결해 보전하는 전체 체계는 '생태네트워크'이다.
④ X — 생물권은 생물이 존재하고 생명현상이 일어나는 지구상의 범위를 가리킨다. 지역 단위에서 서식처를 연결하는 공간계획 개념으로는 '생태네트워크'가 맞다.
⑤ O — 생태네트워크는 개별 서식처나 특정 종에만 머물지 않고 핵심지역과 생태통로, 완충 공간 등을 연계하여 지역 전체의 서식처·생물종·생태적 과정을 보전하는 체계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 비오톱과 ③ 완충지역도 생태 보전에 쓰이는 공간 개념이어서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둘은 네트워크의 개별 공간 또는 구성요소에 가깝고, 문제의 '지역적 맥락에서 모든 서식처와 생물종의 보전'이라는 표현은 연결과 체계를 강조하므로 ⑤를 가리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장에서 '개별 서식처를 넘어', '지역적 맥락', '연결', '종의 이동', '전체 보전'이 함께 제시되면 생태네트워크를 우선 판단한다. 반대로 하나의 균질한 서식공간이면 비오톱, 외부 영향의 저감이면 완충지역, 경관요소의 배열이면 경관구조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비오톱은 하나의 서식공간, 완충지역은 외부 영향 저감, 생태네트워크는 지역 전체의 연결 보전이다.

NoteBase

6.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① 10년 단위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②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③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관한 규제
④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⑤ 도시공원의 구분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는 사항의 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공원녹지법의 계획·확보·구역·공원 구분과 자연환경보전법의 생태·경관 보전 제도를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공원녹지기본계획은 관할 도시지역의 공원녹지 확충·관리·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기본계획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관리하는 구역이다.

핵심 구분

공원녹지법은 공원녹지기본계획, 도시공원과 녹지의 확충·관리, 도시공원의 세분,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기준과 행위 제한 등을 규정한다. 반면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은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가 규율한다. 공원녹지법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원녹지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제15조는 도시공원의 세분을, 제26조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기준을 규정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공원녹지법 제5조는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가 관할 도시지역에 대해 10년 단위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공원녹지법의 내용이다.

② O
공원녹지법은 도시에서 공원녹지를 확충·관리·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도시공원과 녹지의 확충을 위한 제도를 두고 있다. 따라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는 법의 규율 범위에 포함된다.

③ O
공원녹지법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기준과 그 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규정한다. 따라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관한 규제는 공원녹지법의 내용이다.

④ X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은 공원녹지법이 아니라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내용이다.
틀린 표현: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다.
올바른 표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은 「자연환경보전법」의 내용이다.

⑤ O
공원녹지법 제15조는 도시공원을 기능과 주제에 따라 세분한다. 따라서 도시공원의 구분은 공원녹지법의 내용이다.

오답 포인트

③의 도시자연공원구역과 ④의 생태·경관보전지역은 모두 자연환경 보전과 관련되어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공원녹지법,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자연환경보전법의 제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법률의 적용 범위를 묻는 문제에서는 제도 명칭의 핵심어를 기준으로 소관 법률을 연결한다.
'공원녹지기본계획·도시공원·녹지·도시자연공원구역'은 공원녹지법에,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자연환경보전법에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공원녹지법,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자연환경보전법이다.

NoteBase

7.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분진상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녹지계획의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오염물질을 차단하려는 완충녹지대는 항풍에 수직으로 배치하고 오염물질을 확산시키기 위한 녹지대는 항풍에 평행으로 배치한다.

② 차도변의 완충녹지대에는 도로 가까이에 교목과 관목으로 다층 식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③ 수목은 광합성 과정의 흡수를 통해 분진상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므로 광합성능이 큰 수종을 식재한다.

④ 수관과 잎의 내부 면적 대비 주연길이(E/I)의 비율이 높고 질감이 거친 향토 수종을 식재한다.

⑤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고려하여 낙엽 활엽수와 상록 침엽수를 혼식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분진상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녹지의 배치 방향, 식재 구조, 수종 특성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특히 분진이 잎에 포착되는 과정과 광합성에 의한 기체 흡수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핵심 개념

차단·확산 녹지: 오염물질의 이동을 막으려면 항풍에 수직으로, 확산을 유도하려면 항풍에 평행으로 배치한다.
분진 저감 식재: 교목과 관목을 여러 층으로 구성하고, 잎과 가지의 표면 및 가장자리가 분진을 잘 포착하는 수종을 활용한다.
입자상 물질과 기체상 물질의 차이: 미세먼지 같은 분진은 주로 잎·가지 표면에 충돌·침착되어 제거되며, 기공을 통한 흡수와 광합성능은 주로 기체상 물질의 흡수와 관련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오염물질을 막는 완충녹지대를 항풍에 수직으로 두면 바람길을 가로질러 차단 효과가 커지고, 확산 목적의 녹지대는 항풍에 평행하게 배치해 흐름과 확산을 유도한다.
② O — 도로 가까이에 교목과 관목을 다층으로 식재하면 높이별로 식생층이 형성되어 도로에서 발생한 분진을 포착하고 완충하는 데 효과적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광합성 과정의 흡수를 통해 분진상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한다는 부분과 그 근거로 '광합성능이 큰 수종'을 제시한 부분이다. 분진상 물질은 주로 수목의 잎과 가지 표면에 충돌·흡착·침착되어 제거되므로, 올바르게는 분진 포착에 유리한 잎·가지의 표면 구조와 수관 특성을 지닌 수종을 식재한다고 해야 한다.
④ O — 수관과 잎의 내부 면적에 대한 주연길이의 비율인 *E/I*가 높으면 오염물질과 접촉할 수 있는 가장자리 효과가 커지며, 잎이 가늘고 조밀한 침엽수는 분진 포착에 유리하다.
⑤ O — 낙엽 활엽수만 식재하면 겨울철에 잎이 없어 저감 기능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겨울에도 잎을 유지하는 상록 침엽수를 혼식하면 계절에 따른 기능 저하를 보완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③은 수목이 오염물질을 줄인다는 큰 방향은 맞아 보이지만, '분진상 물질'의 제거 기작을 '광합성 과정의 흡수'로 바꿔 놓았다. 분진은 입자이므로 표면 포착·침착이 핵심이고, 기공 흡수나 광합성능과 직접 연결하면 틀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오염물질의 상태를 먼저 구분한다. 분진·미세먼지 같은 입자상 물질이면 잎과 가지의 표면 포착, 다층 식재, 조밀한 수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기체상 물질이면 기공 흡수나 생리 작용과의 관련성을 검토한다. 배치 문제에서는 차단은 항풍에 수직, 확산은 항풍에 평행이라는 기준을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분진은 광합성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잎·가지 표면에 붙여 줄인다. 차단은 바람에 수직, 확산은 바람에 평행이다.

NoteBase

8. 조경설계과정 중 기본계획 단계에서의 의사결정 순서로 옳은 것은?

① 분석 및 종합 → 계획안 전개 → 내적 결정 → 외적 결정
② 분석 및 종합 → 계획안 전개 → 외적 결정 → 내적 결정
③ 분석 및 종합 → 내적 결정 → 계획안 전개 → 외적 결정
④ 계획안 전개 → 분석 및 종합 → 내적 결정 → 외적 결정
⑤ 계획안 전개 → 분석 및 종합 → 외적 결정 → 내적 결정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경설계과정 중 기본계획 단계에서 현황을 해석한 뒤 계획안을 만들고, 설계자 내부의 판단을 거쳐 외부 주체의 결정을 받는 순서를 묻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분석 및 종합 — 대상지의 자연·인문 환경과 요구 조건을 분석하고 이를 종합한다.
2. 계획안 전개 — 분석·종합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안을 구상하고 계획안을 발전시킨다.
3. 내적 결정 — 설계자가 계획안을 비교·검토하여 제시할 안을 내부적으로 결정한다.
4. 외적 결정 — 발주자 등 외부 의사결정 주체가 제시된 계획안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왜 이 순서: 계획안은 분석 및 종합의 결과를 토대로 전개되며, 외부에 결정을 맡기기 전에 설계자 내부의 검토와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분석 및 종합 → 계획안 전개 → 내적 결정 → 외적 결정의 올바른 순서이다. 앞 단계의 결과가 다음 단계의 입력이 되고, 내부 검토 후 외부의 최종 결정으로 이어진다.

② X — '외적 결정 → 내적 결정'의 선후관계가 바뀌었다. 틀린 표현: 외적 결정 → 내적 결정. 올바르게는 내적 결정 → 외적 결정이다.

③ X — 계획안을 전개하기 전에 내적 결정을 한다고 제시한 부분이 틀렸다. 틀린 표현: 분석 및 종합 → 내적 결정 → 계획안 전개. 올바르게는 분석 및 종합 → 계획안 전개 → 내적 결정이다.

④ X — 분석 및 종합보다 계획안 전개를 먼저 한 부분이 틀렸다. 틀린 표현: 계획안 전개 → 분석 및 종합. 올바르게는 분석 및 종합 → 계획안 전개이다.

⑤ X — 시작 단계와 마지막 두 단계의 순서가 모두 바뀌었다. 틀린 표현: 계획안 전개 → 분석 및 종합 → 외적 결정 → 내적 결정. 올바르게는 분석 및 종합 → 계획안 전개 → 내적 결정 → 외적 결정이다.

오답 포인트

계획안 전개와 분석 및 종합의 순서를 뒤집거나, 내적 결정과 외적 결정의 순서를 혼동하기 쉽다. 계획안은 분석 결과가 있어야 전개할 수 있고, 외부의 최종 결정 전에 설계자 내부의 검토·결정이 먼저 이루어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절차형 문제에서는 각 단계의 산출물이 다음 단계에 무엇을 제공하는지 확인한다. 이 과정은 현황 파악·해석 → 계획안 작성 → 내부 검토·선정 → 외부 승인·결정의 흐름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분석·종합하고, 계획안을 전개한 뒤, 안에서 결정하고 밖에서 결정한다.

NoteBase

9. 경관생태학에서 경관구조를 이루는 기본단위인 경관요소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matrix, patch, corridor
② matrix, node, edge
③ matrix, corridor, boundary
④ matrix, patch, boundary
⑤ matrix, corridor, edge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경관생태학에서 경관구조를 이루는 세 가지 기본요소인 바탕(matrix), 조각(patch), 통로(corridor)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matrix: 경관에서 가장 넓고 연속적으로 분포하며 전체 경관의 성격과 기능을 지배하는 바탕이다.
patch: 주변의 바탕과 구별되는 비교적 작은 비선형의 면적 단위이다.
corridor: 서로 떨어진 조각을 연결하거나 생물·물질의 이동로가 되는 선형 요소이다.
따라서 경관구조의 기본요소는 matrix, patch, corridor이다. boundary는 요소 사이의 경계선, edge는 서로 다른 요소가 맞닿아 나타나는 가장자리 또는 전이지대이며, node는 이 세 기본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 matrix, patch, corridor는 경관구조를 이루는 세 가지 기본요소를 모두 바르게 나열한 것이다.
② X — node와 edge가 틀린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matrix, patch, corridor이다. node는 연결망의 결절점을 나타내는 용어이고, edge는 경관요소가 맞닿는 가장자리이므로 기본요소의 조합이 아니다.
③ X — boundary가 틀린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matrix, patch, corridor이다. boundary는 서로 다른 경관요소를 구분하는 경계이지 독립된 세 기본요소 중 하나가 아니다.
④ X — boundary가 틀린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matrix, patch, corridor이다. patch는 포함되지만 boundary 대신 선형 연결요소인 corridor가 들어가야 한다.
⑤ X — edge가 틀린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matrix, patch, corridor이다. corridor는 포함되지만 edge 대신 주변 바탕과 구별되는 면적 단위인 patch가 들어가야 한다.

오답 포인트

boundary와 edge도 경관생태학에서 쓰이는 용어이므로 기본요소처럼 보이는 것이 함정이다. 그러나 기본 골격을 묻는 경우에는 바탕·조각·통로의 세 가지를 선택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경관구조의 기본단위를 묻는 경우 면을 지배하는 바탕(matrix), 바탕과 다른 면적 단위인 조각(patch), 조각을 잇는 선형 요소인 통로(corridor)가 모두 있는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경관의 기본 골격은 바탕(matrix)·조각(patch)·통로(corridor)이다.

NoteBase

10.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국제협약은?

○ 1992년 기후변화 협약(UNFCC)의 구체적인 이행방안 수립 ○ 6대 주요 온실가스 규제 ○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① 몬트리올 의정서
② 교토 의정서
③ 사막화방지 협약
④ 파리 기후변화 협약
⑤ 나고야 의정서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1992년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6대 온실가스, 탄소배출권 거래제라는 단서를 통해 교토의정서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선진국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고 배출권거래제 등의 제도를 도입한 국제협약이다.
몬트리올의정서는 오존층 파괴물질의 규제, 사막화방지협약은 사막화와 가뭄 대응, 파리협정은 모든 당사국이 국가별 감축목표를 제출하는 신기후체제,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 이용에서 발생한 이익의 공정한 공유가 핵심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몬트리올의정서는 프레온가스 등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과 소비를 규제하는 협약이다. 틀린 표현은 제시된 세 특징을 몬트리올의정서와 연결한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교토의정서의 특징이다.

② O
교토의정서는 1992년 기후변화협약의 실질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6대 온실가스를 감축 대상으로 삼았으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포함한 교토메커니즘을 도입하였다.

③ X
사막화방지협약은 사막화 방지와 가뭄 피해 완화를 위한 협약이다. 틀린 표현은 제시된 세 특징을 사막화방지협약과 연결한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교토의정서의 특징이다.

④ X
파리기후변화협약은 2020년 이후 모든 당사국이 국가별 감축목표를 제출·이행하는 기후변화 대응 체제이다. 틀린 표현은 제시된 세 특징을 파리기후변화협약과 연결한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교토의정서의 특징이다.

⑤ X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그 이용으로 생긴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다룬다. 틀린 표현은 제시된 세 특징을 나고야의정서와 연결한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교토의정서의 특징이다.

오답 포인트

여러 국제환경협약이 함께 제시되어 모두 환경보호 협약처럼 보이는 점이 함정이다. 특히 '6대 온실가스'와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교토의정서를 판별하는 결정적 표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규제 대상을 먼저 확인한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와 배출권거래제는 교토, 오존층 파괴물질은 몬트리올, 사막화·가뭄은 사막화방지협약, 국가별 감축목표는 파리, 유전자원 이익공유는 나고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교토는 6대 온실가스와 배출권거래, 몬트리올은 오존층, 나고야는 유전자원 이익공유이다.

NoteBase

11. 이용자 수요추정에 적용하는 최대일률, 회전율, 서비스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최대일률은 최대시 이용자수를 최대일 이용자수로 나눈 비율이다.
② 최대일률은 이용계절이 많을수록 감소한다.
③ 회전율은 최대일 이용자수를 연간 이용자수로 나눈 비율이다.
④ 회전율은 이용자의 체류시간이 길수록 감소하는 경향이다.
⑤ 서비스율(또는 이용률)은 토지이용이나 시설운영의 효율 상 최대시 이용자수의 50%를 적용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이용자 수요추정에 쓰이는 최대일률, 회전율(동시체재율), 서비스율의 의미와 적용 관계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최대일률: 연간 총이용자수 가운데 이용자가 가장 많은 날의 이용자수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용이 여러 계절에 분산될수록 최대일의 집중도가 낮아져 최대일률은 감소한다.
회전율(동시체재율): 하루 이용가능시간 중 평균 체류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평균 체류시간이 길수록 한 시점에 머무는 이용자의 비중이 커지므로 회전율은 증가한다.
서비스율: 시설의 운영 효율과 이용 집중 정도 등을 반영하여 계획 이용자수를 조정하는 비율이다. 모든 시설에 일률적으로 50%를 적용하는 값이 아니다.
관계식: 최대시 이용자수는 연간 이용자수에 최대일률, 서비스율, 회전율을 차례로 곱하여 추정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최대지 이용자수를 최대일 이용자수로 나누는 비율'이다. 최대일률은 최대일 이용자수를 연간 총이용자수로 나눈 비율이다.

② O
이용계절이 많아지면 연간 이용이 여러 계절로 분산되어 특정 최대일에 몰리는 비중이 작아지므로 최대일률은 감소한다.

③ X
틀린 표현은 '최대일 이용자수를 연간 이용자수로 나누는 비율'이다. 이는 최대일률의 설명이다. 회전율은 하루 이용가능시간에 대한 평균 체류시간의 비율로서 최대시 이용자수를 추정할 때 사용한다.

④ X
틀린 표현은 '체류시간이 길수록 감소'이다. 회전율을 동시체재율로 사용하므로 평균 체류시간이 길수록 한 시점에 체류하는 이용자 비중이 커져 회전율은 증가한다.

⑤ X
틀린 표현은 '최대시 이용자수의 50%를 적용'한다는 부분이다. 서비스율은 시설 운영의 효율과 이용 집중 등을 반영해 계획 이용자수를 조정하는 비율이며, 최대시 이용자수의 50%로 고정되는 값이 아니다.

오답 포인트

③은 최대일률의 정의를 회전율의 정의로 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또 일상적인 '회전 횟수'만 떠올리면 ④를 맞다고 보기 쉽지만, 이 수요추정식의 회전율은 평균 체류시간이 길수록 커지는 동시체재율의 의미로 사용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연간 이용자수를 최대일 이용자수로 바꾸는 단계에는 최대일률을, 최대일 이용에서 한 시점의 체재 규모를 구하는 단계에는 회전율을 적용한다. 이용이 계절적으로 분산되면 최대일률은 작아지고, 평균 체류시간이 길어지면 회전율은 커진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여러 계절에 분산되면 최대일률은 감소하고, 오래 머물면 동시체재율인 회전율은 증가한다.

NoteBase

1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주제공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역사공원
② 수변공원
③ 문화공원
④ 도시농업공원
⑤ 가로공원

정답 5번

쟁점

이 문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세분 중 주제공원의 종류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을 구별하고, 법률에 주제공원으로 열거된 명칭을 확인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주제공원은 생활권공원 외에 역사·문화·수변·체육 등 특정하고 다양한 목적을 중심으로 설치하는 도시공원이다.

핵심 구분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는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도시농업공원, 방재공원 및 일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을 주제공원으로 규정한다. 가로공원은 법률에 명칭이 열거된 주제공원 유형이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O — 역사공원은 역사적 장소·시설물·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과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주제공원이다.
② O — 수변공원은 하천가·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와 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주제공원이다.
③ O — 문화공원은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과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주제공원이다.
④ O — 도시농업공원은 도시민의 정서 순화와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주제공원이다.
⑤ X — 가로공원은 법률 제15조에 명칭이 열거된 주제공원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가로공원'이며, 올바르게는 역사공원·문화공원·수변공원·묘지공원·체육공원·도시농업공원·방재공원 등이 법률에 명시된 주제공원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가로’가 도시의 공간 유형처럼 보여 가로공원을 법정 주제공원으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은 일상적으로 가능한 공원 명칭이 아니라 제15조에 명시된 법정 분류를 묻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생활권공원인 소공원·어린이공원·근린공원을 제외하고, 선택지의 명칭이 제15조의 주제공원 목록에 있는지를 대조한다. 역사·문화·수변·묘지·체육·도시농업·방재라는 설치 목적 중심의 명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주제공원은 ‘역문수묘체농방’으로 묶어 기억한다: 역사·문화·수변·묘지·체육·도시농업·방재공원이다.

NoteBase

13.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조경기준」제12조 옥상조경의 면적 산정 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옥상에 교목이 식재된 경우 식재된 교목 수량의 2배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② 피복 면적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원 직경 4센티미터 이상의 수목에 대해서만 식재수목 1주당 0.1제곱미터로 산정한다.
③ 초화류와 지피식물만 식재된 면적은 그 식재면적의 1/4에 해당하는 면적을 산정한다.
④ 벽면녹화 면적은 식재의무면적의 1/3을 초과하여 산정하지 않는다.
⑤ 지표면에서 3미터 이상의 건축물 옥상에 식재 및 조경시설을 설치한 부분의 면적이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조경기준」 제12조에 따른 옥상조경 면적의 산정 기준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옥상 교목의 가중 수량, 초화류·지피식물의 인정 면적, 벽면녹화의 산정 방법과 상한, 적용 높이를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옥상조경 면적은 일정 높이 이상의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옥상에 식재하거나 조경시설을 설치한 부분 등을 기준에 따라 환산한 면적이다. 벽면녹화는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벽면을 식물로 피복하여 녹화하는 것을 말한다.

핵심 구분

「조경기준」 제12조에 따르면 지표면에서 $2m$ 이상인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옥상에 식재 및 조경시설을 설치한 부분을 옥상조경 면적으로 산정한다. 초화류와 지피식물로만 식재한 면적은 그 식재면적의 $\frac{1}{2}$, 옥상에 식재한 교목은 수량의 1.5배로 산정한다. 벽면 피복면적을 산정하기 곤란하면 근원경 $4cm$ 이상인 수목만 1주당 $0.1m^2$로 산정하며, 벽면녹화면적은 식재의무면적의 10%를 초과하여 산정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옥상에 교목을 식재한 경우에는 교목 수량의 1.5배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틀린 표현: '식재된 교목 수량의 2배'
올바른 표현: '식재된 교목 수량의 1.5배'

② O
피복면적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원경 $4cm$ 이상인 수목에 대해서만 식재수목 1주당 $0.1m^2$로 산정한다. 제12조의 산정 기준과 일치한다.

③ X
초화류와 지피식물로만 식재된 면적은 그 식재면적의 $\frac{1}{2}$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산정한다.
틀린 표현: '식재면적의 $\frac{1}{4}$'
올바른 표현: '식재면적의 $\frac{1}{2}$'

④ X
벽면녹화면적은 식재의무면적의 10%를 초과하여 산정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식재의무면적의 $\frac{1}{3}$'
올바른 표현: '식재의무면적의 10%'

⑤ X
옥상조경 면적으로 산정하는 대상은 지표면에서 $2m$ 이상인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옥상에 식재 및 조경시설을 설치한 부분이다.
틀린 표현: '지표면에서 $3m$ 이상의 건축물 옥상'
올바른 표현: '지표면에서 $2m$ 이상의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옥상'

오답 포인트

1.5배 · $\frac{1}{2}$ · 10% · $2m$처럼 서로 다른 기준 수치를 바꾸어 놓은 선지가 함정이다. 특히 ②의 '근원경 $4cm$ 이상, 1주당 $0.1m^2$'는 벽면 피복면적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예외적 환산 기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옥상 교목은 1.5배, 초화류·지피식물만 식재한 면적은 $\frac{1}{2}$, 산정이 곤란한 벽면녹화는 근원경 $4cm$ 이상 수목 1주당 $0.1m^2$, 벽면녹화 상한은 식재의무면적의 10%, 적용 높이는 $2m$ 이상으로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옥상조경 수치는 '높이 2, 교목 1.5, 초화·지피 1/2, 벽면 4·0.1·10%'로 묶는다.

NoteBase

14. 조경계획에서 식생 분석을 위하여 식물군락의 자연성을 등급화한 지도는?

① 녹지자연도
② 식생구조도
③ 식생분포도
④ 생태자연도
⑤ 비오톱지도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식물군락의 자연성을 등급화한 지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식생의 구조·분포나 국토의 종합적인 생태 가치 등을 나타내는 지도와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녹지자연도는 식물군락이 인간의 간섭을 얼마나 적게 받아 자연 상태를 유지하는지를 조사하여 그 자연성의 정도를 등급으로 나타낸 지도이다.
식생구조도는 식생의 층위, 종조성 등 군락의 구조를 나타내고, 식생분포도는 식생 유형이 어디에 분포하는지를 나타낸다.
생태자연도는 산·하천·습지 등 국토 공간의 생태적 가치와 자연성을 종합하여 등급화한 지도이고, 비오톱지도는 동일한 생태적 특성을 지닌 공간 단위를 유형화하고 평가한 지도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녹지자연도는 식물군락의 자연성 정도를 등급화하여 표현하므로 문제의 정의에 정확히 해당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식생구조도'이다. 식생구조도는 식생의 층위와 종조성 등 군락의 구조를 나타내는 지도이며, 식물군락의 자연성을 등급화한 지도는 녹지자연도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식생분포도'이다. 식생분포도는 각 식생 유형의 공간적 위치와 분포 범위를 나타내는 지도이며, 식물군락의 자연성을 등급화한 지도는 녹지자연도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생태자연도'이다. 생태자연도는 국토 공간의 생태적 가치와 자연성을 종합하여 등급화한 지도이며, 식물군락 자체의 자연성 정도를 등급화한 지도는 녹지자연도이다.
⑤ X — 틀린 표현은 '비오톱지도'이다. 비오톱지도는 생태적 특성이 같은 공간을 하나의 생물서식공간 단위로 유형화하고 평가한 지도이며, 식물군락의 자연성을 등급화한 지도는 녹지자연도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 생태자연도에도 '자연도'라는 말이 들어가므로 ① 녹지자연도와 혼동하기 쉽다. 문제의 대상이 '식물군락'이고 판단 기준이 그 군락의 '자연성 등급'이면 녹지자연도이다. 생태자연도는 개별 식물군락보다 넓은 국토 공간의 생태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도 이름을 대상과 표현 내용으로 구별한다. 식물군락의 자연성 등급은 녹지자연도, 식생의 층위·종조성은 식생구조도, 식생의 위치와 범위는 식생분포도, 국토의 종합적 생태 가치는 생태자연도, 생물서식공간의 유형화와 평가는 비오톱지도에 해당한다.

암기 포인트

식물군락의 자연성 등급은 녹지자연도이다.

NoteBase

15.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서 민간공원 추진자가 기부채납 해야 하는 최소 공원면적 비율(%)은?

① 30%
② 40%
③ 50%
④ 60%
⑤ 70%

정답 5번

쟁점

이 문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최소 기부채납 비율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전체 공원면적 중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해야 하는 비율과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나머지 부지의 비율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기부채납은 민간공원추진자가 조성한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핵심 구분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은 민간공원추진자가 설치하는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할 때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기부채납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최소 공원면적 비율은 70%이고, 기부채납하고 남는 부지는 30% 이하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30%는 최소 기부채납 공원면적 비율이 아니다.
틀린 표현: 30%
올바른 표현: 공원면적의 70% 이상이다.

② X
40%는 법에서 정한 최소 비율보다 낮다.
틀린 표현: 40%
올바른 표현: 공원면적의 70% 이상이다.

③ X
50%는 법정 최소 기부채납 비율에 미달한다.
틀린 표현: 50%
올바른 표현: 공원면적의 70% 이상이다.

④ X
60%도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 비율에 미달한다.
틀린 표현: 60%
올바른 표현: 공원면적의 70% 이상이다.

⑤ O
법은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를 특례의 요건으로 정한다.
따라서 최소 공원면적 비율은 70%이다.

오답 포인트

공원으로 기부채납하는 비율과 남는 부지의 비율을 뒤바꾸는 것이 함정이다. 공원면적은 70% 이상이고,
기부채납 후 남는 부지는 30% 이하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민간공원 특례의 면적 비율을 묻는 경우에는 먼저 공원 기부채납 부분과 남는 비공원시설 부지를 구분한다. 최소 공원면적은 70%이고 나머지 부지는 30% 이하라는 대응관계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민간공원 특례는 공원 70% 이상, 남는 부지 30% 이하이다.

NoteBase

16.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제5조제1항의 교목 식재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식재간격은 8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 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식재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한 열식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녹음제공·경관개선 등 특정목적에 따라 군식·혼식할 수 있다.

③ 보도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심기하고 보도폭이 넓을 경우 2열 이상 식재할 수 있다.

④ 도로의 동일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한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확장되는 경우에는 동일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⑤ 식재유형은 동일한 수종으로 군식하고, 하나의 식재군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는 다른 수종으로 혼식할 수 있다.

정답 5번

쟁점

이 문제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 제5조의 식재 기준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제1항의 교목 기준과 제2항의 관목 기준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교목은 줄기가 뚜렷하게 자라 키가 큰 나무이고, 관목은 비교적 키가 작으며 밑부분에서 여러 줄기가 갈라지는 나무이다. 열식은 나무를 줄지어 심는 방식이고, 군식은 여러 나무를 무리 지어 심는 방식이며, 혼식은 서로 다른 수종을 섞어 심는 방식이다.

핵심 구분

제5조제1항은 교목의 식재간격, 식재유형, 식재 열 수, 동일 노선의 수종을 규정한다. 제5조제2항은 관목의 식재간격과 식재유형을 규정한다. 따라서 어떤 문장이 규정 전체로는 맞더라도 제1항의 기준이 아니라 제2항의 기준이면 이 문제에서는 옳지 않은 선지가 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교목의 식재간격은 8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도로의 위치와 주위 여건,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간격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제1항의 기준에 맞는다.

② O
- 교목은 도로선형과 평행한 열식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 여건이나 방음·녹음 제공·경관 개선 등의 특정 목적에 따라 군식 또는 혼식할 수 있으므로 제1항의 기준에 맞는다.

③ O
- 교목은 보도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심기하고, 보도 폭이 넓으면 2열 이상 식재할 수 있으므로 제1항의 기준에 맞는다.

④ O
- 교목은 도로의 동일 노선과 도로 양측에 동일 수종을 식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확장되는 경우에는 동일 노선이라도 다른 수종을 식재할 수 있으므로 제1항의 기준에 맞는다.

⑤ X
- 동일 수종으로 군식하고 하나의 식재군에 동일 수종을 식재하되,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는 다른 수종을 혼식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제5조제2항의 관목 기준이다. 문장 자체는 규정에 맞지만 제1항의 교목 기준은 아니다.
- 틀린 표현: 제5조제1항의 교목 식재유형을 동일 수종의 군식으로 설명한 부분
- 올바른 표현: 제5조제1항의 교목은 도로선형과 평행한 열식을 원칙으로 하며, 특정 목적에 따라 군식·혼식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⑤는 규정에 실제로 존재하는 문장이므로 내용만 보고 판단하면 맞는 선지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문제는 규정 전체가 아니라 제5조제1항의 기준을 묻는다. ⑤는 제2항의 관목 기준이라는 조문 위치가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특정 조·항을 묻는 문제에서는 문장의 일반적 진위뿐 아니라 해당 내용이 지정된 항에 속하는지까지 확인한다. 제5조에서는 제1항을 교목, 제2항을 관목으로 나누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제5조는 1항 교목, 2항 관목이다. 교목은 8미터·열식·1열·동일 노선 동일 수종이고, 관목은 동일 수종 군식이 핵심이다.

NoteBase

17. 「건축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① 공항시설
② 철도 중 역시설
③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④ 연면적 2,000m^2인 물류시설
⑤ 대지면적 10,000m^2에 건축하는 연면적 2,000m^2인 공장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대지의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조경 의무의 면제 대상과 조경면적 완화 기준의 적용 대상을 구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은 법령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여 대지에 조경면적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핵심 구분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은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일정 규모 미만의 공장·물류시설 등을 조경 조치의 면제 대상으로 정한다. 반면 같은 조 제2항은 공항시설, 철도 중 역시설, 면제 규모를 넘는 공장·물류시설 등에 적용되는 조경면적 기준을 정한다. 따라서 조경 기준이 완화된 건축물과 조경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서로 다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공항시설은 조경 조치의 면제 대상이 아니라, 이륙·착륙시설로 쓰는 면적을 제외한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을 조경해야 하는 대상이다.
틀린 표현: 공항시설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올바른 표현: 공항시설은 법령이 정한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을 조경해야 한다.

② X
철도 중 역시설은 조경 조치의 면제 대상이 아니라, 선로·승강장 등 철도운행에 이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제외한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을 조경해야 하는 대상이다.
틀린 표현: 철도 중 역시설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올바른 표현: 철도 중 역시설은 법령이 정한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을 조경해야 한다.

③ O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조경 조치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④ X
물류시설은 원칙적으로 연면적의 합계가 $1{,}500m^2$ 미만이어야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연면적 $2{,}000m^2$인 물류시설은 이 규모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연면적 $2{,}000m^2$인 물류시설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올바른 표현: 면제 대상이 되려면 연면적의 합계가 $1{,}500m^2$ 미만이어야 하며,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제외된다.

⑤ X
공장은 대지면적이 $5{,}000m^2$ 미만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500m^2$ 미만인 경우 등에 면제될 수 있다. 이 선지는 대지면적 $10{,}000m^2$, 연면적 $2{,}000m^2$이므로 두 규모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대지면적 $10{,}000m^2$에 건축하는 연면적 $2{,}000m^2$인 공장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올바른 표현: 별도의 예외 사유가 없다면 연면적의 합계가 $2{,}000m^2$ 이상인 공장은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을 조경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공항시설과 철도 역시설에 10퍼센트라는 완화된 조경 기준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조경 의무가 완전히 면제된다는 뜻으로 오해하기 쉽다. 또한 공장과 물류시설은 대지면적 기준과 연면적 기준의 경계값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제27조제1항의 면제 대상인지 확인한다. 공장과 물류시설은 대지면적·연면적의 기준값을 대조하고, 공항시설과 철도 역시설은 면제가 아니라 별도의 10퍼센트 조경 기준이 적용된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녹지지역은 면제, 공항·역은 10퍼센트 기준, 공장·물류시설은 규모 요건을 확인한다.

NoteBase

18. 저관리형 정원의 식재기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일년생 초화류를 중심으로 식재한다.
② 최소한의 관수가 필요한 식물을 선택한다.
③ 병충해에 강한 수종을 식재한다.
④ 잔디의 양을 줄이거나 관목이나 초화류로 대체한다.
⑤ 토양조건에 적합한 식물재료를 선정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저관리형 정원에서 식물의 교체, 관수, 병충해 방제, 전정, 잔디 깎기 등의 관리 부담을 줄이는 식재기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저관리형 식재는 대상지의 토양·일조·수분 조건에 맞고 병충해에 강한 식물을 골라 물주기, 방제, 전정, 교체 등의 작업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일년생 초화류 중심 식재는 계절마다 다시 심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저관리 원칙과 맞지 않는다. 잔디 면적을 줄이고 관리가 적은 관목·다년생 초화류·지피식물로 대체하면 잔디 깎기와 관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 '일년생 초화류를 중심으로 식재한다'는 부분이 부적합하다. 일년생 초화류는 수명이 짧아 계절별 교체 식재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저관리형 정원에서는 다년생 초화류·지피식물·관리 부담이 적은 관목을 중심으로 식재하는 것이 알맞다.
② O — 물 요구량이 적어 최소한의 관수만 필요한 식물을 선택하면 물주기 횟수와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
③ O — 병충해에 강한 수종을 식재하면 약제 살포, 병든 부위 제거, 식물 교체 등의 관리 부담이 감소한다.
④ O — 잔디 면적을 줄이고 관리가 적은 관목이나 다년생 초화류·지피식물로 대체하면 반복적인 잔디 깎기와 관수 작업을 줄일 수 있다.
⑤ O — 토양, 일조, 수분 등 대상지의 생육조건에 적합한 식물재료는 활착과 생육이 안정적이어서 추가 관수·시비·방제의 필요가 줄어든다.

오답 포인트

초화류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저관리 식물이라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①의 핵심 함정은 '일년생'이다. 일년생 초화류는 반복적인 교체 식재가 필요하지만, ④는 잔디의 반복 관리 부담을 줄이는 대체 식재라는 점에서 다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식재기법이 교체, 관수, 병충해 방제, 전정, 잔디 깎기 중 어느 작업을 줄이는지 확인한다. 반복 교체를 늘리는 일년생 중심 식재는 저관리형에 불리하고, 적지·적종, 내병충성, 낮은 물 요구량, 잔디 면적 축소는 저관리형에 유리하다.

암기 포인트

저관리형 식재는 '적지·적종, 적은 물, 강한 내병충성, 잔디 축소, 반복 교체 최소화'로 정리한다.

NoteBase

19. 녹지자연도 등급을 구분한 기준에서 자연군락이 인간의 영향에 의해 성립되거나 유지되고 있는 군락, 즉 천이과정의 군락은 무엇인가?

① 이차초원
② 조림지
③ 이차림
④ 자연림
⑤ 고산자연초원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녹지자연도 분류에서 인간의 영향을 받아 성립하거나 유지되며 천이가 진행 중인 산림 군락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이차림은 기존 자연림이 교란된 뒤 인간의 영향을 받으며 다시 형성되어 천이가 진행 중인 산림 군락이다. 이차초원은 초본이 우점하는 이차적 초원이고, 조림지는 사람이 나무를 심어 조성한 산림이다. 자연림은 자연적으로 성립한 산림이며, 고산자연초원은 고산의 환경 조건 때문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초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이차초원은 산림이 교란된 뒤 초본이 우점하고 방목·채초 등 인간의 영향으로 유지되는 초원이다. 틀린 표현은 '이차초원'이며, 제시된 산림 군락의 정의에 해당하는 올바른 용어는 '이차림'이다.
② X — 조림지는 사람이 나무를 심어 인위적으로 조성한 산림이다. 틀린 표현은 '조림지'이며, 자연군락이 인간의 영향을 받아 성립·유지되는 천이과정의 산림 군락은 '이차림'이다.
③ O — 이차림은 인간의 영향이나 교란을 받은 뒤 다시 형성되어 천이가 진행 중인 산림 군락이므로 제시된 정의와 일치한다.
④ X — 자연림은 사람이 조성하거나 계속 유지하는 군락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성립한 산림이다. 틀린 표현은 '자연림'이며, 인간의 영향을 받아 성립·유지되는 천이과정의 산림은 '이차림'이다.
⑤ X — 고산자연초원은 수목 생육이 어려운 고산의 기후·입지 조건에 따라 자연적으로 형성된 초원이다. 틀린 표현은 '고산자연초원'이며, 인간 영향 아래 천이가 진행되는 산림 군락은 '이차림'이다.

오답 포인트

'인간의 영향'만 보고 조림지나 이차초원을 고르기 쉽다. 조림지는 식재로 조성한 산림이고 이차초원은 초본 군락인 반면, 문제의 핵심 표현인 '자연군락'과 '천이과정의 군락'은 이차림을 가리킨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간의 영향 뒤 자연적인 천이가 진행되는 산림이면 이차림, 사람이 나무를 직접 심어 조성했으면 조림지, 초본이 우점하면 이차초원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이차림은 '인간 영향 이후 다시 자라는 천이 중의 숲'이다.

NoteBase

20.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생활숲의 유형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마을숲, 경관숲, 학교숲
② 가로숲, 마을숲, 경관숲
③ 경관숲, 학교숲, 가로숲
④ 마을숲, 학교숲, 자투리숲
⑤ 자투리숲, 마을숲, 경관숲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한 생활숲의 세부 유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생활숲에 포함되는 마을숲·경관숲·학교숲과 별도로 정의되는 가로수를 구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생활숲은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쾌적한 생활환경, 아름다운 경관,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이다.

핵심 구분

법 제2조에 따른 생활숲의 유형은 마을숲, 경관숲, 학교숲의 세 가지이다. 가로수는 도로구역 안이나 그 주변지역에 조성·관리하는 수목으로서 생활숲과 별도의 용어이며, 가로숲과 자투리숲은 제2조가 열거한 생활숲의 유형이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마을숲, 경관숲, 학교숲은 법 제2조가 열거한 생활숲의 세부 유형과 정확히 일치한다.

② X — '가로숲'은 법정 생활숲 유형이 아니다. 틀린 표현: 가로숲. 올바른 표현: 학교숲. 따라서 올바른 나열은 학교숲, 마을숲, 경관숲이다.

③ X — '가로숲'은 법정 생활숲 유형이 아니다. 틀린 표현: 가로숲. 올바른 표현: 마을숲. 따라서 올바른 나열은 경관숲, 학교숲, 마을숲이다.

④ X — '자투리숲'은 법정 생활숲 유형이 아니다. 틀린 표현: 자투리숲. 올바른 표현: 경관숲. 따라서 올바른 나열은 마을숲, 학교숲, 경관숲이다.

⑤ X — '자투리숲'은 법정 생활숲 유형이 아니다. 틀린 표현: 자투리숲. 올바른 표현: 학교숲. 따라서 올바른 나열은 학교숲, 마을숲, 경관숲이다.

오답 포인트

②·③의 '가로숲'을 법에 별도로 정의된 '가로수'와 혼동하거나, ④·⑤의 '자투리숲'을 생활숲의 정식 유형으로 오인하기 쉽다. 생활숲은 보기 좋은 일반 명칭이 아니라 법이 열거한 세 유형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생활숲의 유형을 묻는 문항에서는 마을·경관·학교라는 세 핵심어가 모두 있는지 확인한다. 가로수는 별도 정의이고, 가로숲·자투리숲은 생활숲의 법정 유형이 아니므로 제외한다.

암기 포인트

생활숲은 '마·경·학', 즉 마을숲·경관숲·학교숲이다.

NoteBase